

• 타운뉴스칼럼

아빠가 미안했다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대학 졸업 후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딸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게 되었다. 별 생각 없이 나는 언제나 자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아빠였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했다. 아빠는 동생과 자기에게 늘 지시하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남들이 다하는 친구 집에서의 슬립 오버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18살 넘을 때까지는 밖에서 자고 오지 못하게 했었다. 단 친구들이 우리집에서 자는 것은 허락했었다. 딸은 또 교회에서 가는 캠핑도 못 가게 하지 않았냐고 불평했다. 교회 오빠 만날까봐 그랬다고 하자 딸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 하는 듯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리고 딸은 "아빠가 매달 수입의 10%를 아빠 엄마에게 내라" 고 한 것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왜 자기기가 번 돈을 일정액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지 몰랐다. 내가 "그것은 상호 동의에 의한 것" 이었다고 말하자 딸은 "아빠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한 약속" 이라며 억울하다고 했다.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가족 여행을 떠났다. 첫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대학 진학 때문에 집을 떠나더라도 최소한 일년에 세 번은 집에 와야 한다. 언젠가 좋은 지는 너희들이 정해라." 아이들은 여름 휴가 기간에 한 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일 년에 적어도 세 번은 꼭 집에 오겠다고 결정했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둘 다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된다. 첫 봉급을 받을 때부터 매달 너희들은 수입의 10%를 아빠 엄마에게 주어야 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은 5%로 낮아진다. 오늘은 그 약속을 하는 날이다. 모두 손을 내밀어라." 테이블에 손을 다 얹고 약속을 확인하는 의미로 약속이라고 크게 외치자고 했다. 모두들 힘차게 '약속' 이라고 외쳤다. 그런데 딸은 그 동의가 내 강요로 이루어졌으며, 얼떨결에 한 약속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학 졸업 후 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체근하거나 독촉하지 않았다.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서 딸은 그동안 대학 다니면서 빌려 쓴 학자금을 갚느라 돈을 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졸업할 때 약 \$15,000의 빚이 있었는데 모두 갚았다면서 다음 달부터 보내겠다고 구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그 후 보름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

을 입금하고 있다. 정확하게 10%인지는 모른다. 딸이 제가 번 돈을 매달 일정하게 준다는 것으로 만족한다.

딸이 보내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 적금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만기가 돼 돈을 찾았고 이번에 그 돈을 딸에게 주려고 했다. 그런데 딸로부터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아빠의 강요에 의한 약속이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이에게 봉급의 일정액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아이에게 줄 생각이었다 해도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봉급의 10%라는 고정비율을 정해주고 무조건 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난 사실 그 돈을 모아 아이들이 결혼 등의 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줄 생각이었다. 따라서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면 그만 둘 생각이었다. 꼭 아이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어쩌면 장난이 섞인 약속이었다. 설령 아이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야단을 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

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들은 자기는 20% 드릴 생각이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빠의 제안을 따르면서도 딸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빠의 강요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하기 싫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대로 받아 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딸은 저항하지 않고 나의 제안을 따랐던 것이다. 딸과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아이들의 자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준비해두었던 적금 찾은 돈을 딸에게 내밀었다. 딸은 왜 돈을 주느냐며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극구 사양하는 딸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네가 필요한 일에 사용하라" 며 손에 꼭 쥐어 주었다.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다 되었다. 딸은 자기가 저녁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식당으로 안내했다. 점심을 배블리 먹은 탓에 밥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 1391호 목차

| | |
|------------------------|----------------|
| 타운뉴스 칼럼..... | 11 |
| 커뮤니티 소식..... | 13,15 |
| 나는야 1.5세 아줌마..... | 16 |
| 법률..... | 19 |
| 여행..... | 21 |
| 전문인 칼럼..... | 22,25,38 |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25 |
| 숨은그림 찾기,답/날말 퀴즈,답..... | 26,46/26,47 |
| 요리..... | 33 |
| 세상에 이런 일이..... | 34 |
| 깔깔..... | 36 |
| 부동산/경제..... | 37 |
| 건강..... | 39 |
| 한인업소 안내지도..... | 40,42,52,54,56 |
| 그림여행..... | 43 |
| 연예..... | 45,47 |
| 종교..... | 46 |
| 안내광고..... | 48,49 |
| Domestic/ 주간운세..... | 50 |
| 여성..... | 53 |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앤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하시엔다, 로렌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 가디나, 토랜스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6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5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Hara Jeon, DDS, MS, Ph.D
Jeong Eun Kim, DDS
Soyoun Jenny Min, DDS
Maria Capiral, DDS

교정치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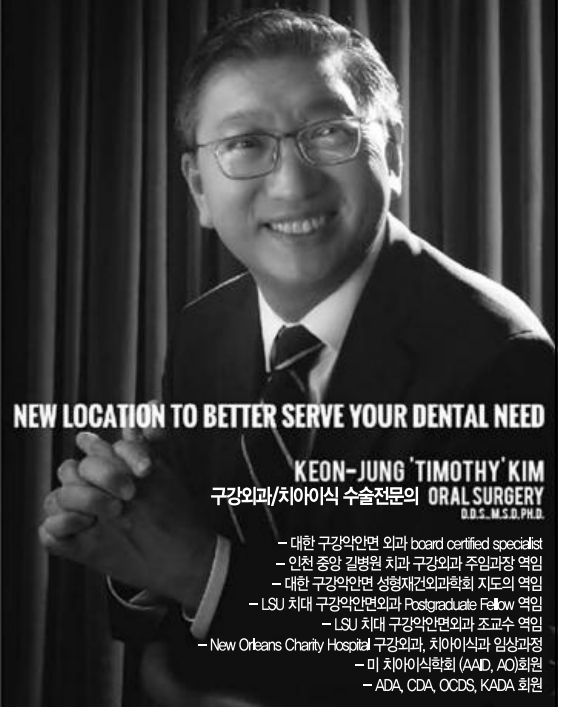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Medicare B plan (PPO) provider
Health care(PPO) 취급하여
→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